

# “국기 태권도 발전 중추적 역할 할 것”

## ‘취임 100일’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의 포부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통하는 태권도원. 이곳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의 발전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메고 지난 5월 12일 취임한 뒤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조직개혁 위해 TF가동 그동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주력해와

19일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집무실에서 만난 오응환 이사장은 현안 해결과 태권도 및 태권도진흥재단의 발전을 위해 뛰다 보니 벌써 취임한 지 100일이 흘렀다며 첫 운을 댔다. 오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의 막중한 책임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태권도진흥재단과 이사장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노사화합을 기반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오응환 이사장이 밝힌 취임 후 첫 행보는 태권도진흥재단의 환기를 위한 ‘조직개혁 TF’ 운영이었다. 그는 “그동안의 발전 과정 중에 문제점이 없었나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면서 “그 결과 ‘기틀 바로 세우기, 미래비전 그리기’ 등 4개 부문 23개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즉시 이행 과제와 분기별 이행 과제 등으로 구

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취임 후 100일간의 가장 큰 성과로 태권도진흥재단의 제1 목표인 태권도 활성화와 지역 내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고 태권도 활성화 지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서울·제주·부산경남 ‘벤티즌 파크’에서는 태권도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고,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이사장은 전북 무주에 태권도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자리한 만큼 지역과의 상생방안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난 분이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이라며 “태권도원 발전이 전북도와 무주군의 발전이고, 전북도와 무주군과 함께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 태권도 및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오는 11월 ‘무주 태권도원 2021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와 ‘2023 세계 챔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 전북의 굵직한 국제 행사에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태권도원을 찾는 선수와 관광객 등이 급감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권투어, 태권스테이 등

태권도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했다”면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단 훈련과 대한태권도협회·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훈련, 실업팀 전지훈련, 태권도장과 학교 현장체험 학습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 태권도를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단체들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태권도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

겠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관련단체 등과 협력강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모든 업무 추진과정은 투명하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 국기 태권도가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수년간 급여봉장을 대한에어로빅협회·(재)한국에어로빅협회에서 관리했습니다.” 전북에어로빅협회의 실업팀 선수 등은 수년간 연봉봉장을 대한에어로빅협회(대한협회)와 (재)한국에어로빅협회(한국협회)가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에어로빅 실업팀 선수들과 전북협회 전 간부는 지난 17일 각종 비위행위가 담긴 사실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A선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봉봉장을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거쳐 한국협회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선수는 지난 2014년 10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4500만원 가량의 연봉을 전북체육회 소속 실업팀으로 활동하면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 “선수·심판 급여 협회가 관리” 주장

전북 에어로빅협회 실업팀 선수 등 경찰에 수사 의뢰 “훈련비 등 명목으로 연봉의 절반수준만 현금으로 지급 협회 측, 선물과 축의금 등을 강요하는 등 각종 갑질도”

그렇게 통장에 입금된 연봉은 전액 한국협회가 관리했고, 한국협회 측은 이 선수에게 연봉의 절반 수준인 적게 월 50만원, 많게 월 2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A 선수는 “실업팀 급여봉장을 한국협회에서 모두관리했다”면서 “숙박비와 훈련비, 의상비 등을 사용해야한다면서 봉장을 제출하게 했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국협회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 또 다른 선수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B선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타지역 체육회 소속 실업팀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 선수는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이 선수도 연봉협상 계약서와 연봉이 입금될 통장을 모두 한국협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는 지난 2014년 한 푼도 받지 못하다 2015년부터 월 100만원씩을 받았고 그 이듬해부터 20만원이 인상된 금액을 한국협회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억했다. 이 선수도 연봉의 절반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B선수는 “적은 연봉을 주면서도 세계대회 갔다 오면 회장에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20만원을 건거나 회장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강제로 걷어갔다”면서 “대회 입상 등 두려움이 있어서 돈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위행위는 선수뿐 아니라 심판에게도 이어졌다고 했다. 전북에어로빅협회에서 간부직으로 활동했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간 8~10회 국내 에어로빅 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했다. 선수와 마찬가지로

심판참여로 주어지는 수당(급여)을 모두 대한협회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수년 동안 봉장을 대한협회에서 관리해 심판활동으로 얼마나 돈이 입금됐는지도 몰랐다”면서 “최근 몇 년 새 문제를 제기하니 일부 금액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에어로빅협회와 (재)한국에어로빅협회가 한 몸”이라며 “한국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이전에 전국 대회와 사업을 추진했고, 현 대한협회 회장이 한국협회 이사를 맡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한에어로빅협회 회장과 (재)한국에어로빅협회 이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한에어로빅협회의 한 간부만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짧게 답변했다. /뉴시스

높을 고창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모두석권!

# ‘고창의 갯벌’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